

[기획]

광주일보·전남대 문화예술사업단 공동기획

온누리안



리포트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제2부 '남몰래 흐느끼는 그녀들'

<8> 우리도 일하고 싶어요

안정적 일터 없어 한 직장 1년 못 넘겨

지난 8일 광주시 동구 금동의 '무지개 다문화 가족' 사무실. 10여명의 조선족 출신 이주여성들이 모여 앉아 '애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저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나 자녀 교육이나 한국생활에서의 고민 등을 먼저 털어놓으려는 마음이 때때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네 명의 '온누리안'은 유독 근심스런 얼굴표정을 짓고 있었다. 최근 1년간 함께 근무하던 일자리를 모두 잃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으로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했지만 지난달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나란히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이주여성 취업률 32% 그쳐

중국 연길 출신의 박성화(35)씨는 "한국생활 10여년간 전단지 돌리기와 유타운 등 타치는 대로 일했는데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게 업무가 나지 않는다"며 "지난 1년간 특근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것이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였다"며 말끝을 흐렸다.

국제결혼으로 광주·전남지역에 정착한 이주여성 가운데 상당수는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 가운데 상당수가 가족생계나 생활비 충당을 위해 경쟁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작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남도의 이주여성실태조사 결과 이주여성 가정의 총 소득은 최저생계비 수준인 132만원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이주여성의 취업률은 31.8%로, 내국인 여성의 취업률(51%)을 크게 밑돌면서 '저소득'과 '저취업'의 이중고를 심각하게 했다. 실제 이주여성들은 취업이유로 가족생계유지(31.8%)를 비롯, 생활비 보충(26%), 자녀교육비 충당(22.6%) 등 한결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고 있다.

더구나 이주여성 취업자 가운데 80%가량이 농·어업이나 음식점, 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누리안'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자녀양육부담(35.2%)과 낮은 임금(12.2%), 의사소통의 어려움(10.9%) 등으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력서 내도 번번이 좌절

출신국 별로는 언어소통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조선족 출신 여성들이 음식점 등 서비스에 25%가 종사하고 있을뿐 베트남의 경우 10명 중 8명이



최근 국제결혼으로 광주·전남에 정착한 이주여성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조선족 출신 여성들이 광주시 동구 금동의 '무지개다문화가족' 사무실에서 취업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대부분 음식점 등 취업... 사무직 업무도 못 내
타치는 대로 일하지만 상당수가 곤궁한 생활
체계적 교육·일자리 창출이 성공 정착 '열쇠'

남편과 함께 농·어업에 종사할 만큼 일자리가 한정돼 있다.

물론 조선족의 경우도 취업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짚는다. 음식점이나 공장 등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특유의 억양과 업무주의의 선입견 등으로 인해 백화점이나 사무직 등에 대한 취업은 업무조차 못내기 때문이다.

조선족 출신 최금녀(34)씨는 "식당일이나 이불 판매 등 갖은 일을 해왔지만 남편의 반대나 업주의 선입견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백화점을 비롯한 일부 직종의 경우 '이력서'를 냈고 동시에 번번히 취업이 좌절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결혼 비중이 높은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특히 필리핀 출신의 경우 상당수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지만 한국에 들어와서는 공장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취업 프로그램 정보도 부족

이에 따라 방과후 영어강사 활동 등을 통한 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담양군과 무안군 등 일부 지자체가 방과후 학교 운영 등에 이주여성을 취업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이주여성의 취업역

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필리핀 출신의 비아트리스(37)씨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농촌진흥원의 시간제 영어강사, 방과후 교사 등을 통해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는데 최근 그마저도 끊긴 상황"이라며 "무안군에서 주는 보조금 39만원으로 세 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함께 생계를 꾸려나갈 생각만 하면 그저 막막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각종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부족도 이주여성의 취업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의 경우 취업 및 지원 프로그램이 소극적이고 있지만 상당수의 이주여성들이 남편이나 가족들의 협조를 받지 못해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근로자선교회 석창원 목사는 "최근 설문 결과 이주여성 가운데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음식값을 줄이거나 굶은 사람이 13%에 달할 만큼 경제적 빈곤이 심각하다"며 "이주여성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한글교실을 비롯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조선족 출신 박정애 씨

"중국어 자격증도 있는데
꾸준히 일할 곳 없어요"

"여수 화재참사 당시 통역으로 참여한 것이 한국에서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지난 1995년 결혼과 함께 한국으로 온 조선족 출신 박정애(36)씨. 박씨는 아직도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능숙하다. 대부분의 조선족들과는 달리 한민학교가 아닌 하얼빈 중국인학교를 졸업한 탓이다.

하지만 유창한 중국어 실력이 오히려 한국에서 큰 도움이 됐다. '광주국제식품산업전'과 '하늘 바람 땅에너지전', '국제 실버박람회' 등 광주에서 열린 각종 국제 행사 마다 통역을 맡으면서 일에 대한 보람은 물론 가계수입에도 많은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의 화재참사 때는 중국인 환자의 통역을 맡아 경찰의 진술확보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여전히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크다. 최근 1년간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생활 10여년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가정봉사원'도 지난달 말로 계약이 끝나면서 또다시 실업자 신세가 됐다. 지난해 7월에는 'HSK(중국어능력시험)'에도 합격했지만 대학을 나와야만 중국어학원 취업이 가능한 탓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박씨는 "특유의 중국 억양으로 인해 일반 회사에서의 근무가 어려운 데다 학력이 고졸인 탓에 학원에도 취업을 할 수가 없다"며 "방과후 공부방이나 아동센터 등에서 간간히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꾸준히 일할 곳을 찾지 못해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LCE타워(주)
첨단지구 LCE타워
최대한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매
*중형 2층 70평 5800만 24/1700만 21억
*대형 3층 120평 1.2억 5800만 24/1700만 21억

한일지도판매(주)
2007 최신광주지도
책 판매개시!!
타사제품 미기득점 부문

호성공인중개사
대지매매
(교회, 원·투룸부지)
*광산구 하남공단내 2차선 x2차선
*북구 양산지구 대지 1,000평, 500평 3면도로전 평당 135만

토우드공인중개사
토지
*산하동 800평 당 도로형 평당 1900만
*전곡동 3000평 하남공단내 2차선 부지 도로 전 부지매매 2억 2000만

다우공인중개사
오봉리 전원주택지
(평당 30만)
*남안 한대지동차 출고장 건너편
*오봉리 2차선 도로전 평당 30만

법원경매
지지경매컨설팅(주)
(광주법원 입찰법정 건너편)
☎ 062-226-0047
현장조사, 권리분석, 수의분석, 입찰신청, 대출안내, 명도까지 원스톱서비스로 확실한 채테크